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산상변화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예배를 22일(수)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력에 따라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순절 달력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1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졸업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받으신 사순절 달력의 실천사항들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식 당 봉 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2/26식 당 봉 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춘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오늘설거지봉사 : 김영아 김수진 이준하 유상진
 다음 주 설거지 : 김세진 한기택 양상철 박재란
 새 교 우 : 김경민(청) 채지연(7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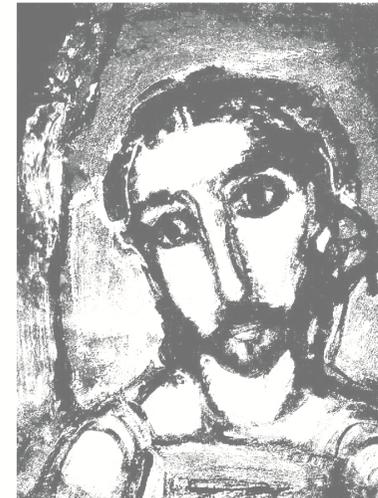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햇빛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르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뒤로 하고 고난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주님을 떠올리며, 일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소명의 길을 정성스럽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와 있는 사순절 순례의 시간을 깊은 반성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순례의 여정 끝자리에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김남홍 선우영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준우 우순덕 김혜권 박재임 문금석 박권동 박창운 김허정윤
 백묘현 백성래 안보혜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용규 노지현 노이병주
 오송경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정현선 조병익 조정연 조병
 조항미 주경진 이윤정 차혜심 노미향 한기택 한상경 LK

감사헌금:

김순복 김용진 박효선 김필순 노우종 우주연 노준우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이계선 이소순 전예원 정수복 장미란 정영선 조병무
 송양진 차혜심 현진실 무명4

녹색꿈헌금:

양준하 이영순 이진영 한양미 이혜령 무명3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래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허정윤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장혜숙 이준림 최경미 곽혜자 조병주 문복순 허정윤 오복순 구성실 구정현 정영현	송임회 김윤수 이재문 장영숙 박옥순 정선희 강순배 권미숙 이수정 홍춘숙 정현선
--	---	---	---	---

튀밥에 대하여

안도현

변두리 공터 부근/ 적막이며 개똥무더기를 동무 삼아 지나가다 보면
 난데없이 옆구리를 치는 뜨거운/ 튀밥 냄새 만날 때 있지
 그 짓 하다 들킨 똥개처럼 놀라 돌아보면
 망할놈의 튀밥장수, 망하기는커녕
 한 이십 년 전부터 그저 그래 왔다는 듯이
 똥개똥개 단내 나는 김을 피워올리고
 생각나지, 햇볕처럼 하얀 튀밥을
 하나라도 더 주워 먹으려고 우르르 몰리던
 그때, 우리는 영락없는 송사리떼였지
 흑백사진 속으로 60년대며 70년대 다 들여보내고
 세상에 뛰쳐나온 우리들/ 풍문으로 듣고 있지, 지금 누구는
 나무를 타고 오른다는 가물치가 되었다 하고
 누구는 팔딱만한 메기가 되어 진흙탕에서 놀고
 또 누구는 모래무지 되고 봉어도 잉어도 되었다는데
 삶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 제대로/ 나는 가고 있는지, 가령
 쌀 한 되밖에 감미료 조금 넣고
 한없이 돌리다가 어느 순간 뽕, 튀밥을 한 자루나 만들어 내는 것처럼
 순식간에 뒤집히는 삶을 기다려오지는 않았는지
 튀밥으로 배 채우려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입안에는 헛바늘이 각성처럼 돋지
 안 먹겠다고, 저녁밥 안 먹겠다고 떼쓰다
 어머니한테 혼나고 매만 맞는 거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사는 여정 위에서 성경의 말씀을 벗 삼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의 이기적인 욕심에 호소하는 헛된 말에 이끌리던 지난날을 부끄럽게 여기며 참회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샨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을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마가복음 / 이범석 목사 기도 : 안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하현철 권사	최다미 학생
	김기석 목사	박홍재 권사	조항미 집사

2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범희 이근식 고숙이 박미영 신영신
	헌금위원	한상익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마음을 비운다는 것

기도

신이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이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활게 하소서.
 모든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제가 뺏어 가는 것을 돕지 마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의 온 신의가 이지러질 때
 그때에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어 가고 싶은 것은
 오직 당신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헤르만 헤세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맨 끝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 시와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우는 것은 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탐하는 일, 싫은 사람, 피곤한 시간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더욱이 어두움 속에 내던져진 채 위로도 빛도 없는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와 같습니다. ‘나’가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비울 수는 없습니다. 참사랑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우고 내던질 수 있을 때에 있습니다.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을 거듭 목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높은 분이었지만 낮아지고 부(富)한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되었는데 나는 거꾸로 낮은 자가 높이 오르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 주님과 ‘반대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동양사회에서 전설처럼 전해 오는 이상적인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요순(堯舜) 시절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잘 살았고, 법은 고사하고 백성들이 나라의 통치자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요 임금의 홀로 시골 마을에 가 보았습니다. 밭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는 한 농부에게 던지시 “당신은 우리나라 임금이 누구인지 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무심히 대답하기를 “우리야, 해 뜨면 집에서 나오고 해지면 집으로 들어가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 밥 먹고 사는데, 임금이고 뭐고 상관할 게 뭐 있소?” 하는 것입니다. 요 임금은 비로소 자신의 정치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 되어 흐뭇해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법률이 세상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 오늘의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법뿐이 아니라 내세워지는 여러 가지 명분의 과잉, 미사여구의 과잉도 사람들을 싫증나게 하고, 가치관에 무감각해지게 하며, 불신풜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이니 ‘정의’ 니 ‘복지’ 니 하는 말들이 남발될 때에, 사람들은 허탈 속에서 사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인간적인 진실이 소통되어 나가는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역지의 행위와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無爲而無不爲)’, ‘말 없이도 가르침을 주는 사람(不言之教)’ 의 경지가 때때로 갈망됩니다. 이상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린이처럼 순진해지기를 바라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상기됩니다.

순진함, 부드러움은 가장 생동하는 생명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죽을 때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풀과 나무, 모든 것이 싹틀 때는 여리고 부드러우나 죽으면 메마르고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성질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가장 신선한 생명입니다.” 옛 현인의 말씀입니다. ...

- 김수환 추기경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 중에서